

KIA 새 캐치프레이즈
New Start
KIA Tigers
Go V10!



'New Start KIA Tigers! Go V10!' KIA타이거즈가 2008시즌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확정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1천634건의 작품 중 김민(광주시 서구 풍암동)씨가 제출한 'New Start KIA Tigers! Go V10!'가 최종 선정됐다.

캐치프레이즈처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V10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이를 동안의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31일 오전 10시 두 번째 캠프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떠난다.

관에서 웨이트와 기초체력 훈련위주의 몸만들기에 주력했던 선수단은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시즌 대비에 들어간다. 내달 25일까지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 캠프를 차리고 기술 및 전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후 가고시마로 옮겨 실전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내달 중순에는 주력 멤버들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오늘부터 일본 전지훈련

서재응·최희섭 '특별관리'

한편 KIA는 'V10'을 위해 투타의 핵심인 서재응과 최희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서재응은 국내 복귀 과정에서 4개월 가량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3월 초 정상 투구를 목표로 개별 훈련을 하우 페이스를 늦추었다.

최희섭은 체중이 불어 러닝과 웨이트 위주로 관 훈련을 소화하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중도 귀국해 검진을 받았었다. 의학적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에 따라 2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체력 훈련을 해왔지만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다.

통상 2월 중순께 시작되는 메이저리그의 스프링캠프 일정을 고려하면 두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에게 국내 프로야구에서 맞는 첫 스프링 캠프가 버거울 수도 있다.

조범범 감독은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면서 두 선수의 컨디션이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장성호, 이현곤도 갈 길이 바빠졌다. 쪼저근막염으로 고생했던 이현곤은 발목치 통증과 고질적인 갑상선 이상으로 컨디션까지 좋지 않아 관에서 고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훈련 강도를 높여 정상 컨디션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슬러거 변신을 선언한 장성호도 우측 견관절회전근 염증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재활 치료와 기초체력 위주로 몸 풀기에 그쳤지만 일본 전지훈련에서 본격적인 배팅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에 유럽투어 정상 도전

오늘 호주 여자오픈 개막
정상급 선수들 출전 안해
올해 첫 '우승 사냥' 기회

한국여자 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가 호주에서 2008년 첫 우승컵에 도전한다.

신지에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멜버른 킹스턴힐스골프장(파72·6천82m)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MFS호주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월드컵에 이어 새해 두번째 대회지만 월드컵이 단체전이라는 점에서 MFS호주여자오픈이 사실상 2008년 첫 대회나 다름없다. 목표는 우승이다.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세계랭킹에서 신지에(7위)보다 앞선 선수는 카리 웹(호주·세계랭킹 3위) 뿐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2월 15일 개막전을 여는 탓에 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하지 않는다.

웹과 백전노장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가 경계 대상이지만 본격적인 시즌 개막을 석달 가량 남겨놓고 전지훈련 삼아 출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와 일본여자프로골프 상위권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뛰는 박희영(20), 최나연(21)을 비롯해 새색시 김주연(27), 홍란(23·먼싱웨어), 김하늘(20·코오롱) 등이 신지에와 우승을 다툰 후보들이다.

특히 일본 요코미네 사쿠라와 우에하라 아야코, 그리고 청야니(대만)도 신경써야 할 선수로 꼽힌다.



위성미 시즌 첫 티샷

내달 22일 필즈오픈 참가

위성미(19·미국이름 미셸 위·사진)가 다음 달 22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필즈오픈에 출전한다.

AP통신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새 시즌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오픈 출전으로 시작했던 미셸 위가 올해는 여자 대회를 시즌 첫 대회로 잡았다고 30일 보도했다.

2006년 창설된 필즈오픈은 당시 최고 스타로 발돋움하던 미셸 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 대회 때 미셸 위는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손목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스탠퍼드대학 1학년인 위성미는 남자 대회 출전은 당분간 사양하겠다고 밝혀 올해는 주로 여자 대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프로야구 제 8구단 창단

현대팀 인수...연고지 서울 목동
최대 스폰서 기업명을 팀명으로

와해된 현대 야구단을 대신하는 신생팀이 창업투자사에 의해 창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창업투자사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이장석)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 조인식을 가졌다.

가입금은 최근 KT와 협의했던 60억원보다 2배나 많은 12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연고지지역은 서울 목동 구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센테니얼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등 '공중분해'되는 현대 유니콘스 선수단을 전원 인수하기로 했으며 구단사장은 이장석 대표이사, 단장으로는 박노준 SBS 해설위원 겸 KBO 기술위원이 선임됐다.

KBO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이 지난 해부터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자 농협중앙회와 STX, KT와 잇따라 접촉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가 뒤늦게 창업투자사를 끌어들이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스폰서 확보 부진땀 연봉 삭감·구조조정 불가피

'네이밍 마케팅' 성공할까?

센테니얼이 30일 구단 운영자금을 스폰서 기업의 광고비로 충당하는 '네이밍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국내 그라운드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생소한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기존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 구단들은 그동안 모기업이나 대주주, 자회사들 알리는 '홍보 참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센테니얼은 이와 달리 유니폼 전면과 소매, 헬멧 등에 복수 기업의 광고를 실어줌으로써 그 광고 수입으로 구단을 끌어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8개구단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창투사인 센테니얼은 그러나 구단은 소유했지만 팀명은 스폰서 기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네이밍 마케팅'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센테니얼 관계자에 따르면 야구단 창단을 위해 20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입금 120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올 해 운영자금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테니얼은 국내 중견기업들과 다양한 접촉을 벌여 2~3개 업체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스폰서 기업명을 팀명으로 정할 경우 해마다 야구단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5년의 다년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날 신상우 KBO 총재와 조인식에 나선 이장석 센테니얼 대표이사는 "야구단을 민간투자사업모델로 운영해 한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제8구단 창단에 대해 모든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밝혔으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선 다시 이사회 심의와 구단주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현대 유니콘스 '역사 속으로'

30일 오전 창업투자사인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키로 함에 따라 현대 유니콘스는 2007 시즌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으로 해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는 비난에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호흡을 같이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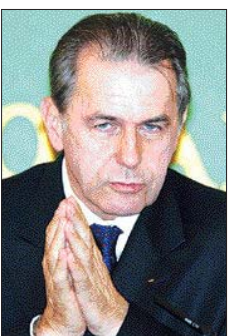
반면 네이밍 마케팅은 이런 정서와 달리 철저한 상업성에 근거해 구단과 팬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스폰서 지원 규모에 따라 당장 구단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전체 운영비의 80%에 이르는 선수단 경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선수들의 연봉 등 품값이 운영비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스폰서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대폭적인 연봉 삭감이나 선수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핸드볼 亞에선 갈등
국제연맹 규정따라
원만하게 해결돼야"

자크 로게 IOC 위원장 밝혀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을 둘러싼 갈등은 국제핸드볼연맹(IHF) 규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일정을 밝혔다. AP통신이 30일 전했다.

로게 IOC위원장은 "(한국이) 재경기를 요청한 것은 국제연맹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시아핸드볼연맹(AHF)-IHF 마찰은 국제연맹 룰에 의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IOC가 아시아핸드볼연맹과 국제핸드볼연맹 가운데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핸드볼연맹은 로게 IOC위원장의 발언을 즉각 환영했다.

핸드볼 아시아 지역예선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열렸지만 당시 요르단과 이란 심판이 남녀 경기 막판 수분 간 득실 심판 대신 투입패 경기를 진행했으며 한국 대신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올림픽 본선 티켓을 얻는데 한 몫을 했다.

판과관정 논란이 거세지자 국제핸드볼연맹은 작년 12월에 도쿄에서 아시아예선 재경기를 열라고 지시했고 재경기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참가했다.

이후 아시아연맹이 국제연맹 지시에 반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반면, 국제연맹은 최근 아시아연맹에 서한을 보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대륙별 예선 결과를 보증하는 유일한 기구는 국제연맹'이라고 선언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 장 시세: 3,500, 4,400, 6,400
골프 장 시세: 1,700, 1,900, 2,100
상담: (062)351-0095